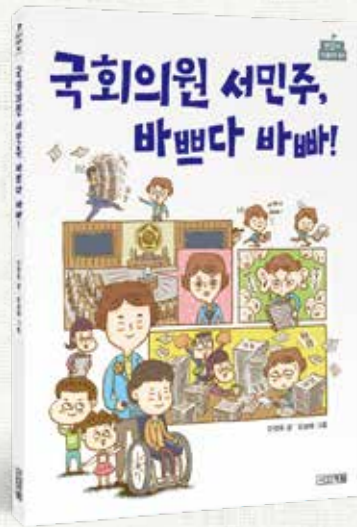

국회의원 서민주, 바쁘다 바빠!



안점옥 글 | 유설화 그림 | 112쪽

- 4학년 1학기 사회 3. 민주주의와 주민 자치
- 6학년 2학기 사회 2. 우리나라의 민주 정치



2016년 5월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제20대 국회의 국회의원 수는 모두 300명이다. 지역에서 투표로 뽑는 지역구 의원 253명, 정당 투표로 뽑는 비례대표 의원 47명이다.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다. 그래서 4년마다 국민이 직접 투표로 국회의원을 뽑는다. 선거 날짜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이면 투표권이 있다. 투표권이 있는 사람은 지역구에 한 표, 정당 투표에 한 표, 이렇게 두 표를 잘 선택하여 찍는다. 우리는 이 책에서 국회의원이 어떻게 당선되며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있다.

(학습 목표)

국회의원은 헌법을 고칠 수 있고, 갖가지 법률(2016년 3월 기준, 1719개)을 정한다. 한마디로 사회의 반칙을 막고 국민이 지켜야 할 '규칙'을 정한다.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이고, 시장의 자율에 따라 굴러간다. 하지만 아무리 자유롭게 굴러가는 사회라 하더라도 일정한 규칙이 필요하다. 이 규칙을 어기면 벌을 받는다. 그런 만큼 규칙은 중요한 것이고, 공평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이러한 규칙인 법과 법률을 정하는 입법 기관이면서 나라 살림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감사하는 심의 기관이기도 하다. 집행 기관 행정부에서 올린 정부 예산안을 살펴보고 잘못된 곳은 없는지, 우리가 내는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늘 지켜보고 감사한다.

-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자.
-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 국회의원이 하는 일을 조사해 보자.
- 국정조사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독전 활동)

국회의원이 하는 일과 광역 시·도(구·시·군) 의원이 하는 일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 보자.

- ➔ 선생님은 조를 나누어 조사할 내용을 낱말이 알려 준다.
- ➔ 국회의원이 하는 일과 광역 시·도(구·시·군) 의원이 하는 일을 조사해 발표한다.

▶ 선생님은 다음 내용을 아이들에게 더 설명해 줄 수 있다.

국회를 '국민의 대표기관'이라 한다. 국회는 선거구민이 직접 투표로 뽑은 의원으로 꾸리지만, 국회의원은 선거구민의 뜻에 구속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양심에 따라 국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 다시 말해 국회의원은 자신의 지역구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국민을 대표한다. 또한 국회의원은 특정 정당에 소속되어 정당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정당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전체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와 정당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는 이중적 지위를 지닌다. 그러나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와 정당 구성원으로서의 지위가 대립할 경우 국회의원은 먼저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따라야 한다. 국회의원은 국회의 표결에 참여할 때도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방침에 얽매이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해야 한다.





(독후 활동)

우리 학급 규칙 정하기

- ▶ 선생님은 모둠별로 정할 규칙의 주제를 나눈다. 각 모둠은 사회자와 기록할 사람을 정한다.
- ▶ 각 모둠에서 정해야 할 규칙은 다음과 같다.
 - 교실에서 지켜야 할 것
 - 교실 밖에서 지켜야 할 것
 - 우리 반만의 특별한 대회
 - 우리 반만의 특별한 날
 - 급식실에서 지켜야 할 것
 - 선생님이 지켜야 할 것
- ▶ 선생님도 규칙을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부할 때 허품을 하지 말자, 허품을 하더라도 한 손으로 가리고 하자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 ▶ 모둠별로 기록하는 사람이 나와 자신의 모둠에서 정한 규칙을 말한다.
- ▶ 찬성과 반대 토론을 거친 다음 투표로 결정한다.

